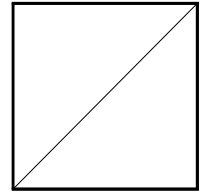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63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6. 9. (제 11 차)	

국민연금의 한국전력 발행주식
소유한도 재승인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고 승 범
제출 연월일	2022. 6. 9.

1. 의결주문

국민연금의 한국전력 발행주식 소유한도 재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초과 소유에 대한 재승인을 신청해 왔음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승인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국민연금이 한국전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까지 소유하는 것의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소유비율 한도 재승인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신청한대로 승인한다.

국민연금은 승인가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종료일 이전에 재승인 받아야 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기관 협의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22.5.3.)

나.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2022.5.31.) 심의필

다. 제11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2.6.2.) 심의필

라. 관계법규 : **【별첨】** 참조

(별 지)

국민연금공단의 한국전력공사 주식소유한도 재승인

국민연금공단의 한국전력공사 주식소유한도 재승인 신청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승인가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종료일 이전에 재승인 받아야 하며, 재승인 받지 않을 경우 승인가한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투자업규정 제5-53조에 따라 대량주식취득의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음 -

가. 법인명 : 국민연금공단

나. 이사장 : ○○○ 이사장 직무대행

다.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만성동)

라. 취득 대상회사 : 한국전력공사

마. 주식소유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0%(▲▲▲▲▲▲▲주, '22.5.9일 기준)

바. 초과승인 기한 : 승인일로부터 3년

사. 승인일 : 2022년 6월 9일

【별첨】

관 계 법 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①·② (생략)

③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공적 법인만이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할 수 있다.

④~⑥ (생략)

제167조(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① 누구든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때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식의 발행 당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그 소유비율
2. 제1호에 따른 주주 외의 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소유비율 한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한도까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그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2조(공공적 법인의 범위)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관계 부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의 보고를 거쳐 지정하는 법인으로 한다.

1. 경영기반이 정착되고 계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법인일 것
2.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법인일 것
3. 해당 법인의 주식을 국민이 광범위하게 분산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금 규모가 큰 법인일 것

□ 금융투자업규정

제5-51조(주식의 대량취득의 승인신청) 법 제167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승인신청서(이하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주식취득사유 설명서
3. 당해 주식발행인의 최대주주의 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의견서

제5-52조(주식의 대량취득의 승인간주) ① 법 제16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법 제167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합병·상속 또는 유증
 2.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
 3. 유상증자(주주권의 행사로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4. 대주주(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가 100분의 10 이상인 주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를 말한다)외의 주주가 실권한 주식의 인수
 5. 정부 소유주식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직접 취득
 6. 정부의 취득
- ② 공공적법인이 주식을 상장할 당시에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외의 주주가 법 제16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5-53조(주식의 대량취득의 보고) 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취득한 자(제5-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취

득기간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대량주식취득의 사실을 보고하는 서류(이하 “대량주식취득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주식취득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의 내용대로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54조(보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① 공공적법인 발행주식 취득을 신청하는 자는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 및 대량주식취득보고서를 각각 2부씩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동 신청서 등을 접수일부터 3년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 및 대량주식취득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53